

【자료소개】

《만주국 문학자료 정리와 연구》 총서 발간에 대한 소회

김 창 호*

1

돌이켜보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장춘에서 유학을 한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다. 장춘은 아주 추운 곳이다. 겨울이 1년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10월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4월이 지나야 추위가 물러간다. 그야말로 ‘긴 봄’이란 이름이 무색한 곳이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봄내’라는 춘천도 ‘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만 같은 위도에 있는 서울보다 추운 것이 사실이다. 두 도시 다 내가 꽤 오랫동안 숨 쉬고 있는 곳인데 봄의 따뜻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유안진 시인은 ‘춘천은 가을도 봄’이라고 하면서 ‘까닭도 연고도 없이 가고 싶은’ 곳이라고 노래한 바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에서 겨울축제로 유명한 하얼빈이나, 한국에서 겨울축제로 유명한 화천에 비하면 장춘이나 춘천은 모두 상대적으로 봄이 빨리 찾아오는 곳이니 ‘춘’자가 들어가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간다.

내가 장춘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은 뭐 특별히 연고가 있거나 뜻이 있어서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가기위해 중국 대학 두 곳에 편지를 보냈는데, 한 곳은 북경대학교이고 다른 한 곳은 길림대학이었다. 이 두 대학에 편지를 보낸 것은 그 당시 나의 모교가 중국의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은

*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곳이 이 두 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후 길림대학으로부터 답장이 먼저 왔다. 나는 그 도시가 어떤 곳인지, 또 겨울이 얼마나 추운 곳인지 모른 채 무작정 장춘으로 날아갔고, 그냥 한 명의 생활인으로서 살면서 대학 일을 다녔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장춘이 만주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물론 그 전에도 ‘위황궁’과 같은 명소를 간적이 있었고, 저녁을 먹고 ‘지질궁(현 문화광장)’과 ‘팔대부(신민대가)’ 거리를 산책한 적은 있지만,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갖고 간 것은 아니었다. 장춘은 그저 유학생생활을 하는 공간이었을 뿐이다. 그런 장춘이 만주국의 수도였고, 해방 전에선 적지 않은 국내 인사들이 머물렀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학위논문을 쓰면서부터다.

어디 쉽게 써지는 글이 있겠느냐는 학위논문과 같은 굵직한 문장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박사 지도교수인 순중전(孫中田) 교수님은 마오둔 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지만 굳이 이미 많이 연구된 중앙 문단의 저명한 문학가들을 주목하는 것보다 한국적 시각에서 논문의 소재를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근대문학이 일본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공기 속에서 전개된 것이라면 만주국 또한 일본의 강점아래에 있지 않았는가? 우리 슈레비츠가 《보물》이라는 동화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중한 보물은 늘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미 5년 정도를 살고 있는 이곳이 근대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한 만주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논문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근대문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한 한국과 만주의 문학을 비교 연구한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여기에는 길림대학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많은 문학연구자들이 중일 비교 연구에만 편중되어 있었고, 일제강점으로 동병상련을 느낄 수도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중국학계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다.

지도교수께서도 나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셨다. 당시 칠

순이 넘은 교수님은 산딩山丁 등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과 교류도 있었기 때문에 만주국 문학에 대해서도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셨고, 80년대 이후 출판된 작품집과 연구서들도 몇 권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자료수집이었다. 지도교수님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자 지도교수님께서 만주국 문학연구의 권위자이신 리춘옌李春燕 교수를 소개해주셨다. 그분은 길림성 사회사과원 중문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일찍부터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여러 권의 저작물과 수많은 논문을 쓴 중진 연구자였다. 전화를 드리고 방문하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자신이 저술한 저서와 다수를 귀한 자료를 빌려주셨다. 물론 이 교수님의 후학에 대한 애정은 단지 나에게만은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었다. 길림대학이나 동북사범대학 등 장춘 소재의 대학에서 만주국의 문학을 연구하는 많은 후학들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다른 지역과 심지어 해외에서 찾아온 연구자들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총서의 주편을 맡은 류샤오리 교수도 박사과정 때 방문하여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다.

나는 두 분 교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길림성도서관과 장춘도서관, 길림대학 도서관, 동북사범대학 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이들 도서관 중 해방 전의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장춘도서관이었다. 그러나 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방 전 도서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필사하는 것은 가능할 뿐 대출이나 심지어 복사도 불가능했다. 이는 연구 수행에 커다란 장벽으로 다가왔다. 두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주로 80년대 이후에 출판된 저서와 《동북현대문학연구사료》 등 잡지가 대부분이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도서관의 제약은 다른 도시의 도서관도 마찬가지였다. 한 예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어느 작가가 자신이 신문에 연재했던 작품이 대련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서관을 방문했으나 도서

관 측에서 거절해서 결과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나 역시 대련시 도서관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목록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지금 자료 정리 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걸음을 되돌린 적이 있다. 자료 없이는 연구가 불가능하다. 그 동안 만주국 문학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도 동북이라는 ‘변방의 문학에 대한 무관심과 만주국 문학은 ‘친일문학이라는 고깔이 덧씌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료의 공개 여부도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동북지역의 도서관들이 만주국 시기의 자료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어느 일본학자가 대련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 중 중국 군중들이 거리에 도열하여 일장기를 들고 일본군의 만주진출을 환영하는 사진을 가지고 당시 일본의 만주점령이 강제성이 없다는 글을 발표한 다음부터 자료공개를 조심했다는 후문이 있다. 그러나 장춘도서관의 경우 최근 장춘도서관 부관장을 역임한 분이 그곳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국 문학 자료들을 연대별로 엮어 총서로 출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의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들었다.

2

그 동안 만주국 문학에 관한 출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동안 산딩, 구딩, 메이닝 등 잘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집과 연구서가 출판되었고, 《동북현대문학사료》 등 10여 권의 문학잡지에도 다수의 작품과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다. 80년대에 출판된 《동북현대문학사료》(1980. 3월 1기) 등에 실린 글은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노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글의 진위여부를 떠나 마지막 육성과 같은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며, 만주국 문학 연구의 신호탄이 된 성과물이다. 그러나 이 사료들이 출판된 80년대는 문화대혁명이라는 얼음이 아직 덜 녹은 시기였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을 가지고 있던 작가들이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없던 시기였고,

또한 수록된 글이 이른바 애국적 혁명문인들과 관내를 유랑하면서 중앙문단에 이름을 날린 샤오권蕭軍 등 유명 작가들을 중심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만주국 문학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중국 문화계가 전반적으로 다시 침체되면서 이러한 열기가 수그러지고 한동안 출판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해방이후 만주국 문학 자료가 처음으로 총서 형식으로 출판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장위마오張毓茂 교수가 주편을 맡은 《동북현대문학대계》(심양출판사)는 일반 대중 독자들에게 만주국 문학에 대한 갈증을 공개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소설, 시, 산문, 희곡, 평론 등 각 장르별의 대표적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이 총서의 공헌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만주국의 문학작품들을 양지로 드러내고 문학사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이나 친일적 작품은 누락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장편소설을 위시해서 작품 수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이쉽다. 만주국 문학 자료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총서는 북경대학 증문과 교수이자 저명한 인문학자인 첸리첸錢理群 교수가 주편을 맡은

《중국윤합구문학대계》(광서교육출판사, 1998년)이다. 이 총서 역시 장르별로 편찬되어 있는데,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만주국을 포함한 일제 강점 아래에 있던 중국 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총서들의 출판은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만주국 문학 자료를 연구자들과 대중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는데 자못 의미가 크지만 작품 선정에서 편집인의 주관적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었고, 장르별로 소수의 작품들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연구에서 중요한 작가별 작품집과 평론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1월에 출판된 《만주국 문학자료 정리와 연구》(원제 《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의 출판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상하이 화동사범대학 중문과 교수인 류샤오리劉曉麗 교수가 편집을 주도한 이 총서는 중국(5명), 일본(2명), 한국, 미국, 캐나다(각 1명)의 학자들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35명의 집필진이 약 3년 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저술하고 번역하여 얻어진 결과물이다.

작년 6월 연세대학교에서 거행된 우리 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주편을 맡은 류샤오리 교수가 소개한 바와 같이 34권으로 구성된 이 총서는 크게 ‘작품 권’, ‘사료 권’, ‘연구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권’은 만주국 시기에 활동한 산딩山丁, 구딩古丁, 쉘칭爵靑, 메이낭梅娘, 위엔시袁犀, 샤오송小松, 우잉吳瑛, 주티朱媿와 커취柯炬, 양쉬楊絮, 츠덩慈燈 등 만주국에서 활동한 주요작가의 작품집과 통속문학 작품집, 고체 시집, 그리고 조선작가 작품집, 일본작가 작품집, 러시아작가 작품집 등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만주국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집이 매우 제한적으로 출판되었다. 산딩, 구딩, 메이낭, 쉘칭의 단편소설을 위주로 한 작품집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만주국의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 무엇보다 작품집에 중국인 작품뿐만 아니라 이주 민족의 문학작품이 수록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만주국 당시 중국 문학가들은 일본작가들과는 문예 간담회 등을 통한 직접적 만남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빈번하게 교류한 것에

반해 조선인 작가나 러시아 작가와의 상대적으로 드물게 교류한 것이 사실이다. 안수길의 <부역녀>가 1941년 《신만주》 11월호에 ‘재만 일·만·선·러 작가전 특집’에 포함되어 중국어로 번역 소개된 것이 유일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이번에 출판된 총서에 ‘재만 일·선·러 작품집’이 각각 단행본으로 번역되어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는 것은 만주국 당시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결과물이며, 비록 양적인 면에서 만주국 당시의 문학 성과와는 차이가 많지만 ‘만주 문학 장’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만주국에서 활동한 각 민족의 문학성공을 총서를 담으려고 한 편집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자료 권’은 만주국 시기의 문학 출판물과 문학사 연표, 그리고 최근까지 진행된 연구 자료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만주국의 문학잡지》, 《위만주국 주요 중국어 신문 문예부간 목록》, 《위만주국 문예 대사기》, 《위만주국 문학연구 자료 모음》, 《노작가 서신》으로 엮여 있다. 그중 《위만주국 문학연구 자료 모음》에는 중국, 일본, 영미권, 한국의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개와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국내의 연구 성과 소개와 목록은 필자가 정리하였다. 《위만주국 문예 대사기》는 만주국 문학의 사건과 출판 등이 연대 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어 만주국 문학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작가 서신》에는 산딩, 왕치우잉 등 만주국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오카다 선생이나 노만 스미스 선생 등 오랫동안 만주국 문학을 연구한 세계 각국의 연구가들에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어 만주국 활동한 문학가들의 색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다.

‘연구 권’에는 만주국 시기에 출판된 연구 자료집과 최근 출판된 연구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만주국 시기에 출판된 연구 자료집은 《만주작가 논집》과 《만주문학 20년》이 있다. 전자는 만주국 중국인 문학평론가인 천인陳因이 편찬한 책인데, 당시 활동한 작가 중 대표적 작가에 대한 평론이 작가별로 수록되어 있다. 필자의 경우에도 리춘옌 교수로부터 복사본을 제공받아 복사를 한 적이 있지만 상태가 매우 흐리기 때문에 자료를 볼 때 아주

힘들었다. 따라서 이 책이 복간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만주문학 20년》 만주국에서 활동한 대표적 일본인 평론가 오오우치 다카오大内隆雄가 저술한 일본어 평론집인데 중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이다. 최근의 출판된 연구서로는 《위만주국 문학·속》(岡田英樹 저), 《식민개척과 문학이산—“만주국” 중국인 작가/문학의 지역 이동》(張泉 저), 《색다른 시간 속의 정신세계-위만주국 문학연구》(劉曉麗 저), 《만주국에 대한 저항—위만주국 여성 작가 연구》(노만 스미스 저), 《위만주국의 중국어 작가와 중국어 문학》(大久保明男 저), 《한국 근대문학과 “만주국”》(김재용 저), 《타협과 저항—구덩의 창작과 출판활동》(梅定娥 저), 《위만주국 시기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 비교연구》(김장선 저), 《위만주국 통속소설 연구》(詹麗 저), 《일본의 위만주국 문학연구》(大久保明男 등 저), 《위만주국 조선작가 연구》(李海英 저)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 《위만주국 문학·속편》은 2008년 최정옥 선생에 의해 국내에 번역된 오카다 히테키岡田英樹 선생의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의 속편으로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이후에 저술한 선생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연구 권’에 수록된 13권의 연구서는 향후 후속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나 《만주신문학사료》(王秋螢 作) 등 만주국 시기에 편찬, 저술된 연구서의 복간 수가 적은 것과 최근의 연구서들도 제한적으로 수록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중국의 고서적 판매 웹사이트에도 간혹 해방 전에 출판된 서적들을 볼 수 있으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고, 중점 도서관에도 몇 권의 자료들을 만날 수 있으나 아직도 미공개, 혹은 복사 불허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만주국 문학의 원 텍스트와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고 복간되어 보다 많은 독자들이 만주국의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소망하는 바이다.

3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총서는 그간 총서출판의 전범처럼 여겨왔던

장르별 분류라는 틀을 깨고 작품, 사료, 연구 별로 묶었으며, 또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기존의 총서와 자료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과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만주국 문학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현대문학 연구자인 상하이 푸단대학의 천스허陳思和 교수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현대문학사 연구의 이론을 대담하면서도 유용한 방향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문학사 연구가 이전의 전쟁문화라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원적인 문학사 전모를 완성시킬 수 있다.” “위만주국 문학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드러낸 이 총서는 중국현대문학연구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식민주의 하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현대문학의 경험을 새롭게 평하였으며,” “세계 각국에 산재된 위만주국 문학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음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학술적 시야의 위만주국 문학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서가 출판된 배경을 추론해보면 몇 가지 사항이 떠오른다. 첫째 중국 학술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G2로 상징되는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은 문화계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학술계에 대한 국가지원 사업의 확대와 인재육성 정책으로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 재작년 동아시아 식민주의 문학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을 방문했을 때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000년대 초 필자가 만주국 문학을 연구할 때만 해도 불과 양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던 만주국 문학 연구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류샤오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20여 명의 석, 박사 대학원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학회에서 길림대학과 동북사대의 후배들을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 것도 그동안 중국에서의 만주국 연구의 열기가 상당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연구자의 외연확대는 만주국 문학 연구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동북현대문학대계》를 편찬한 장위마오張毓茂 교수나 장춘학계를 주도한 리춘엔 교수의 경우 고위 관리를 역임했거나 국가학술기관에 재직했기 때문에 연

구의 시각이나 결과물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탈식민주의 이론이 수입되고 중국식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일본 함락시기의 문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희곡이나 아동문학 등 장르의 확대와 함께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발굴 등 연구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주편을 맡은 류샤오리 교수의 열정을 들 수 있다. 류 교수는 필자와 비슷한 시기 박사과정을 다녔다. 유학할 당시 지도교수와 리춘옌 교수로부터 박사과정에 있었던 류 교수가 만주국 문학자료 수집과 함께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나 그 가족들을 방문하는 등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반가움을 표시한 적이 있었다. 귀국 한 동안 류 교수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7,8년 전에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 심포지움”에서 처음 상면했다. 류 교수는 화동사범대학 중문과에서 재직한 이후로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과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만주국 문학연구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만주국이 있었던 동북에서 먼 상하이의 한 대학에서 만주국 문학의 기지를 만들었다는 것도 의아스러운 일이지만,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만주국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소인 “위만주국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후학들을 양성하고, 관련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운 일이다.

셋째,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 심포지움”을 들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총서의 편집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미주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주편을 담당한 류샤오리 교수가 동아시아 지역의 식민주의 문학 연구자들과 교류를 진행한 곳이 바로 이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 심포지움”이다. 이 심포지움은 김재용 교수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총 10회에 걸쳐 국내 학자는 물론 일본, 중국, 타이완의 근대문학 연구자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와 시각으로 동아시아 식민주의 문학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고,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동아시아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포럼”의 각국 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오카다

히데키 교수, 중국의 류샤오리 교수, 타이완의 류슈친 교수 등은 이 심포지움을 통해 발표자로 수차례 참여하면서 교류를 나누었다. 김재용 교수의 말에 따르면, 오오무라 마쓰오 교수와 처음 이 심포지움을 만들 때 앞으로 매년 한 번, 10년 동안 총 10회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4년 10년이 지나자 이 심포지움에 참여했던 동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은 이 심포지움이 지속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이 심포지움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타이완, 일본 등 4개 지역에서 매년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주최하고자 결의하였고, 학술대회 명칭은 “동아시아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학술포럼”으로 정했다. 이에 2015년 12월에는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에서 개최되었으며, 2016년 11월에는 타이완 청화대학에서 류슈친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금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오쿠보 교수가 주도하였다. 특히 2015년 화동사범대학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는 총서 저술 및 편집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총서의 출판을 축하하는 한편,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만주국 문학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끝으로 총서의 목차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작품권】 山丁作品集, 古丁作品集, 爵青作品集, 梅娘作品集, 袁犀作品集, 小松作品集, 吳瑛作品集, 朱媿、柯炬作品集, 楊絮作品集, 慈燈作品集, 僞滿洲國通俗文學作品集, 僞滿洲國日本作家作品集, 僞滿洲國朝鮮作家作品集, 僞滿洲國俄羅斯作家作品集, 僞滿洲國舊體詩集(이상 15권).

【사료권】 僞滿洲國의 文學雜誌, 僞滿洲國主要中國語新聞文藝副刊目錄, 僞滿洲國文藝大事記, 僞滿洲國文學研究資料匯編, 老作家書簡(이상 5권).

【연구권】 滿洲作家論集, 滿洲文學二十年, 僞滿洲國文學·續, 植民開拓與文學離散—“滿洲國”“滿系”作家/文學的跨域流動, 異態時空中的精神世界—僞滿洲國文學研究, 反抗“滿洲國”—僞滿洲國女作家研究, 僞滿洲國的漢語作家和漢語文學, 韓國近代文學和“滿洲國”, 妥協與抵抗—古丁的創作與文學活動, 僞滿洲國時期朝鮮人文學與中國人文學比較研究, 僞滿洲國通俗小說研究, 僞滿洲國文學研究在日本, 僞滿洲國朝鮮作家研究(이상 13권).

투고일 : 2017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21일